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복음기도신문

Gospel Prayer Newspaper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www.gnpnews.net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사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를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라”

더 이상의 분열은 불행의 또 다른 시작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사회적 갈등 봉합 돼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구속 수감됐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교연)은 박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 “오늘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두 번 다시 되풀이되어선 안 될 국가적 비극”이라며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더 큰 분열과 갈등이 초래된다면 이는 불행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 우리 사회는 극심한 분열을 보이며 대립해왔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찬성을 주장한 집단은 국회와 검찰의 주장,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단정한 언론보도를 근거로 탄핵과 구속이 정당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은 초창기 언론보도의 문제점이 상당히 드러났음에도 이같은 오류가 시정되지 않은 채 국회와 검찰에 의해 무리한 수사가 여론을 호도시켜 대통령의 구속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교연은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다수가

억누르고 배제하는 게 아니라 꺼안고 상생하는 제도”라며 “촛불과 태극기가 보여주듯이 대통령 탄핵 사태로 드러난 극한의 국론분열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정신이 반드시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경은 어느 시대나 그 사회의 타락과 부패는 성도와 교회가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데서 비롯됐음을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GNPNEWS]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몬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예레미야애가 2:18)

기도 |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된 이 땅의 분열과 나뉘는 역사가 이때 끊어지는 은혜를 허락주소서. 우리의 돌이킴으로 주님의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 시에라리온 뱀티묵 마을에서

이제 갓 소녀티를 벗은 듯한 옛된 여인이 아기를 둘러업고 식사를 준비한다. 연기가 매운지 질끈 감은 눈으로도 익숙하게 밥알을 으갠다. 아기는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다. 전기도, 가스도 없는 이곳. 돌 몇 개로 냄비를 받치고 장작에 불을 붙이면 그 어떤 주방도 부럽지 않다. 문제는 먹을거리다. 하루에 한 끼만 먹을 정도로 가난한 이곳,

그래서 무언가를 조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한 끼의 식사가 허락해 주는 기쁨. 인간은 가장 원초적인 필요 앞에서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가. 눈에 보이는 수 많은 걱정과 근심은 먹고 사는 근원적인 문제 앞에 꼬리를 감춘다. 수 많은 영혼들은 지금도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참된 양식이

없어 허덕이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먹을거리가 되셨다. 이 떡을 먹고 영생을 얻은 자, 찬송과 경배가 영원히 터져 나올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요한복음 6:51)” [GNPNEWS]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32)

매주 교회에 가는 시간이 아깝나요?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이같이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모았다.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예수 믿으면 좋을 것도 같지만, 매주 교회에 가야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매주 교회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제까지의 시간 스케줄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을 예상하시는군요. 맞습니다.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나 당신 인생에서 시간 스케줄이 확연히 변한 사건이 단 한번

도 없었습니까? 엄마 품 안에 있다가 그 손을 놓고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해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시기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부모와 사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사춘기 시절엔 어땠나요?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식구들과의 동행을 거절한 때도 있었죠?

시간 스케줄이 가장 엉망이 되었으나, 기꺼이 우리가 그 일을 즐겁게 했던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였을 겁니다. 데이트를 할 때는 도무지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없었습니까요. 매일 만나도 좋고,

하루에 몇 번을 만나도 좋지 않았나요? 만나는 시간을 줄이려고 하거나, 만나서 금방 헤어지려고 하면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닌가 의심하게 되죠.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죄인이 된 당신을 위해, 죽임으로 대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롭고 행복한 시간 스케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삶은 매주 교회 가는 것을 놓고 갈등하지 않



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알아가며 사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선 당연히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분과 보내는 시간엔 이제까지 그 어떤 연인도 주지 못하는 행복이 있기에 평생을 그분과 함께 보내도 아깝거나 지루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 매일 가도 또 가고 싶은 곳입니다. [GNP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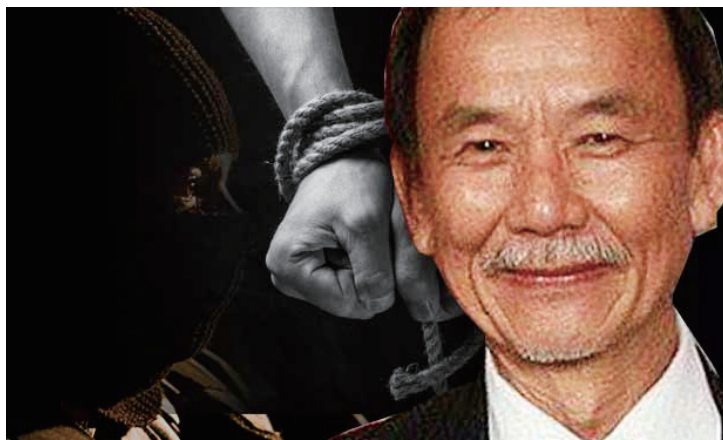
INSIDE

- 02** 뉴스 | 아시아
미혼모 등 무슬림 돕던 말레이시아 목회자, 피랍
- 03** 월드 뷰 |
'미녀와 야수' 동성애코드로 논란... 관람 거부 움직임
- 05** 인터뷰 | 이은진·차세은 자매
'마음이 흔들릴 때 예배와 기도로 단기선교의 부르심 깨달아'
- 06**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김용의
복음을 가진 교회가 역사의 유일한 해답이다
- 08** 뷰즈인 아트 |
신미경의 <화장실 프로젝트(Toilet Project)>
철저히 자기 자신을 버린 '비누'에서 발견된 십자가



아시아

미혼모 등 무슬림 돕던 말레이시아 목회자, 피랍



▶ 레이몬드 코 목사(출처: 선데이데일리 유튜브채널 캡처)

말레이시아에서 무슬림 미혼모, 약물중독자 등을 돕던 목회자가 행방불명 된 지 한 달이 넘도록 소식이 없어 가족과 관계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최근 크리스천헤드라인뉴스는 말레이시아 레이몬드 코 목사가 쿠알라룸푸르에서 정체불명의 괴한에게 납치됐으나 가족들은 경찰로부터 수사과정에 대해 어떤 정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코 목사는 지난 2월 13일 오전 쿠

알라룸푸르의 친구 집에 가던 중, 3대의 검은 SUV 차량에 둘러싸여 강제로 멈춰선 이후 이들과 함께 어딘가로 사라지는 장면이 인근의 폐쇄회로(CCTV)에 촬영됐다. 코 목사는 그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가족들은 목사의 행방에 대한 정보제공자에게 2만2500달러의 사례금을 제시했지만, 3월 하순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다.

62세의 코 목사는 20년간 미국

복음자유교회를 섬기다 2004년부터 미혼모 가정, 약물 중독자,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에이즈(AIDS)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비영리단체 하라판 커뮤니티를 운영해왔다. 또 방과후학교를 열어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온 이 단체를 통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주로 말레이시아의 무슬림들이었다.

셀랑고르 이슬람종교부는 이같은 하라판 커뮤니티를 예외의 주시해왔다. 2011년 종교부는 이 단체가 감리교회에서 주최한 추수감사절 및 모금을 위한 만찬을 급습해 이 모임에 참여한 12명의 말레이시아 무슬림에게 개종을 시도했는지 조사했다. 하지만, 결국 무혐의로 사건을 종료했다.

코 목사의 지인은 이 사건 이후 말레이시아 무슬림들이 그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코 목사의 집에 총을 쏘거나 수시로 찾아가 나라를 떠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GNPNEWS]

한국

빈 공간 통해 '십자가' 의미 재조명

액체를 담거나 사명(使命)을 의미하는 '잔' 속의 빈 공간을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전시회가 오는 4월 7일(금)부터 5월 31일(토)까지 열린다.

전시관 수애노339는 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절 시기에 맞춰 잔의 외형보다 잔 속의 빈 공간 즉, '잔의 깊이'를 통해 잔의 본질을 되새기는 '잔의 깊이-남겨진 것의 장엄'전을 갖는다.

사회가 설정한 기준에 의해 사라지는 것,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진 것들이 주는 미학적 가치를 찾아

보는 것이 이번 전시회의 관람 포인트다.

이번 전시 기획을 맡은 이상윤 미술평론가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십자가의 본질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는 작품들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비누로 다양한 동서양 고대유물을 재현한 신미경, 버려진 주거공간이나 아파트에서 가져온 사물을 설치한 연기백, 박제를 통해 인체의 형태와 미학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병호, 이면의



공간을 드러낸 김서연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장소: 수애노339(서울 종로구 평창길 339) 관람료 없음. [GNPNEWS]

한국

순회선교단, 4월~10월까지 순회복음집회 개최

종교개혁500주년 2017 순회복음집회

경건의 열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망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시 (롬1:16)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순회복음집회 일정 안내

4월 14일~15일 (토, 일)	대구 (문의: 010-4108-4641)	시간 / 목, 금 : 오후 6시 30분, 토 : 오후 2시
5월 12일~13일 (토, 일)	광주 (문의: 010-7685-4641)	장사 / 김용의 선교사
6월 8일~9일 (목, 금)	부산 (문의: 010-8810-4641)	LOG MISSIONS (Logos Group) 1301
7월 7일~8일 (금, 토)	전주 (문의: 010-5146-4641)	2017다시복음에 오직 열망
8월 24일~25일 (목, 금)	서울 (문의: 010-9447-4641)	10월 11일~11월 11일 (토, 일)
9월 8일~9일 (토, 일)	대전 (문의: 010-5132-4641)	
10월 13일~14일 (토, 일)	원주 (문의: 010-2090-4641)	

순회선교단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오는 4월 14일부터 대구를 시작으로 매월 전국 7개 도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건의 열망'(롬 1:16)이라는 주제로 순회복음집회를 갖는다.

이번 집회는 김용의 선교사(LOG 미션 대표)를 주 강사로 각 지역에서 목, 금 오후 6시 30분, 토요일은 오후 2시에 시작된다. 모임 장소와 일시, 문의전화는 다음과 같다.

▶대구 4월 14일~15일(금,토) ☎

010-4108-4641 ▶광주 5월 12일~13일(금,토) ☎ 010-7685-4641 ▶부산 6월 8일~9일(목,금) ☎ 010-8810-4641 ▶전주 7월 7일~8일(금,토) ☎ 010-5146-4641 ▶서울 8월 24일~25일(목,금) ☎ 010-9447-4641, 010-2037-4641 ▶대전 9월 8일~9일(금,토) ☎ 010-5132-4641 ▶원주 10월 13일~14일(금,토) ☎ 010-2090-4641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3.21~3.28)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프랑스, 경찰 총격에 중국인 사망...중국인들 항의시위

프랑스 파리에서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하던 한 중국인 남성이 경찰의 총에 맞고 숨지자 중국인 150여 명이 경찰서로 물러가 차량을 불태우고 돌을 던지는 등 격렬한 항의시위를 벌였다고 28일(현지시간)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인간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자기변명과 합리화로 왜곡되어도 공의로 심판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서로를 판단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십자가 사랑을 부으사 용서와 화해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한국 작년 아동학대 신고 3만 건 육박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가 크게 늘어 총 3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범부처 아동학대대책협의회의 말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016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만9669건으로 전년 대비 1만9214건보다 54.4% 증가했다.

주님, 드러난 어둠보다 더 깊은 죄의 근원을 보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만 주어지면 무서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 된 인간의 실체를 깨닫고 아동학대 문제에도 완전한 해결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복하는 은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미국 "이라크 역대급 민간인 오폭" 일부 시인

미군이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의 거점인 이라크 모술 민간인 오폭을 일부 시인했다고 25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동맹군은 오폭으로 민간인이 최소 200명 숨졌다고 전했다.

하나님, 대의멸친(大義滅親) 할 수밖에 없는 전쟁의 한계를 넘어서, 근본적이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영광을 열방에 뒤덮게 하시는 그 날을 기대하며 끝까지 기도합니다.

방글라데시 어린이 노동자, 유독 물질 노출 위험

방글라데시 가죽공장에서 8세 가량의 어린이 노동자들이 유해 화학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공장에서 개인 보호 장비도 없이 하루 종일 연기를 들이마시며 일을 하고 있다고 국경없는의사회(MSF)의 말을 인용해 21일(현지시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주여, 인간의 탐욕으로 상처받은 어린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주님께 이 일을 올려드립니다. 방글라데시에 가장 필요한 선명한 십자가의 복음을 주시고, 완전한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7년 4월 2주~4월 3주

- | | |
|--------------------------------------|--|
| 4월 2주(4.10~4.15) | 4월 3주(4.17~4.22) |
| ▶경기 평택/ 세교중앙교회 (최**) 010-2702-5268 | ▶인천 계양/ 효성동교회 (조성환) 032-548-4056 |
| ▶강원 춘천/ 춘천중부교회 (현흥만) 033-252-3616 | ▶전남 신안/ 열방선교센터 (강**) 010-7364-9982 |
| 4.10~11, 13~14(10시~12시) | 4.17~18, 20~21(10시~12시) |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 010-8432-3698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 010-8432-3698 |
| 4.10~14(07시~23시) | 4.17~21(14시~19시) |
| ▶강원 강릉/ 은강교회 (박**) 010-7439-7020 | ▶경기 시흥/ 은혜교회 (위**) 010-4510-1070 |
| 4.10~14(14시~19시) | 4.21(08시~20시) |
| ▶경기 시흥/ 은혜교회 (위**) 010-4510-1070 | ▶경기 김포/ 김포전원교회 (강**) 010-4128-0448 |
| 4.10~14(19시~24시) | 4.21~22(22시~22시) |
| ▶광주 북구/ 십자가복음교회 (김**) 010-9883-2347 | ▶서울 광진/ 한국중앙교회 (황**) 010-7766-3100 |
| 4.14(08시~20시) | 기도참여 문의 |
| ▶경기 김포/ 김포전원교회 (강**) 010-4128-0448 | 기도24·365본부 느헤미야52팀 |
| 4.14~15(22시~22시) | 070-4803-9026~7, 010-5424-4641 www.prayer24365.org |
| ▶서울 광진/ 한국중앙교회 (황**) 010-7766-3100 | |

월드 뷰 World view

‘미녀와 야수’ 동성애코드로 논란… 관람거부 움직임

해외 일부 국가는 연령조정, 문제장면 삭제, 한국은 전체관람가



▶ 지난 3월 17일부터 상영을 시작한 디즈니 영화사의 미녀와야수(출처: mtv캡처)

동성애 문화가 청소년을 넘어 어린이가 볼 수 있는 가족영화에까지 침투,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 주의가 요청된다.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반동연)는 최근 가족영화로 포장된 ‘미녀와 야수’는 동성애에 조장 영화로 관람을 삼가야 한다’고 논평했다.

미녀와 야수의 동성애 코드

반동연은 외국의 경우, ‘미녀와 야수’의 영화상영 취소, 문제의 장면 삭제, 관람가능연령 조정 등 다양한 대책이 등장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온 가족 전체가 관람 가능한 영화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에서는 16세 이상 관람가, 말레이시아에서는 동성애장면 삭제와 13세 이상 관람가 등급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국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전체관람 등급으로 승인했다.

반동연은 주인공 ‘르푸’와 ‘개스톤’이 입맞춤하는 장면을 연출, 친구 이상의 감정을 지닌 것으로 묘사하며 동성애자로 둔갑시켰다고 말했다.

노골적인 동성애 장면은 없다하더라도 동성의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묘사함으로써 이같은 행위를 어린이들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초 서울에서 열린 ‘미녀

와 야수’ 라이브 컨퍼런스에서 영화를 연출한 빌 콘돈 감독은 “영화의 주제가 ‘수용’이라며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는 동성애를 수용할 의도가 있었으며 이를 받아들여달라는 요청으로 읽힌다.

또 이 영화에서 시계 콕스워스의 목소리 연기를 맡은 이안 맥켈런도는 뉴욕에서 열린 모임에서 “이 영화는 또 다른 게이 오락물”이라며 농담같은 진담을 펼쳤다.

반동연은 “디즈니가 만든 영화들이 걸보기는 아름다워도 내용상으로는 동성애, 마술, 마법과 요정, 인종, 외모 등 특정한 고정관념, 선

정성을 조장해 왔다.”며 “기독교인들은 ‘미녀와 야수’를 가족영화로 여겨 어린 자녀를 동반한 관람이나 주위 사람에게 추천하는 일을 삼가해달라.”고 호소했다.

디즈니의 親 동성애 행보 ‘심각’

미국가정협회(American Family Association, AFA)는 최근 “디즈니의 동성애 캐릭터는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AFA 에드 비타글리아노 부회장은 “어린이들이 게이와 레즈비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부모가 인격적으로 가르쳐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즉, 어린이들이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통해 동성애를 먼저 배울 경우, 부모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또한 디즈니는 동성애자를 영화에 출연시키기도 한다. 디즈니의 영화 ‘도리를 찾아서’ 주인공 ‘도리’의 목소리를 맡은 엘런 드제너러스는 동성애자이자 동성애 인권운동가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디즈니사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다.”며 디즈니 영화 관람거부 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미국 기독교평론가 라이어 데니슨은 최근 데니슨포럼의 기고문을 통해 “동성애 장면 때문에 영화관람에 신경을 쓰기보다 자녀들이 이러한 영화를 볼 수 있을 만큼 성숙했는지 부모들이 결정해야 한다.” [GNPNEWS]



▶ 조시 게드가 연기한 게이 캐릭터 르푸. 애니메이션판 르푸에서는 볼 수 없는 여성적 몸짓과 태도를 취하고 있다(출처: gospelherald 캡처)

이라크 기독교인, 거의 소멸 상태

30년만에 140만 명에서 2만5000명으로 급감

‘바그다드의 성직자’로 알려진 영국 성공회 사제 캐논 앤드류 화이트가 최근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기독교가 ‘발생지’에서 사실상 소멸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끝이 오고 있다. 어떤 기독교인도 이곳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화이트 사제는 “남아있는 몇몇 기독교인은 역사적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머물러야 하지만,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동체의 미래는 매우 제한적이다. 기독교인들은 이라크와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지역인 중동에서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하며 빠져나온다. 그들은 자신들이 떠나온 곳에 돌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

ISIS가 이 지역을 본격적으로 점령하기 시작한 2014년부터 이라크의 기독교인 숫자는 크게 줄어들었다. 30년 전, 이라크의 기독교인은 약 140만 명 정도로 추정됐다. 그러나 2017년 초 현재는

2만5000명도 채 못미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화이트 사제는 그동안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핍박받는 기독교인을 돕는 단체를 이끌고 있다.

그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만약 내가 미국인에게 무엇이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의 동료, 형제 자매가 고통받고 있고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말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단지 평화를 위한 기도가 아니다. 그들은 많은 음식과 자원, 옷, 그 외의 것이 필요하다. 그들은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이트 사제는 2014년 캔더버리 대주교가 그에게 안전의 이유로 떠나라고 할 때까지 바그다드의 세인트 조지스 교회의 교구목사로 목회하며, 엄청난 파괴과정과 종교적 박해를 직접 지켜봤다. [GNPNEWS]



▶ 이라크 성공회 사제이자 중동 지역의 구호 및 화해 재단(FRRME) 총재 캐논 앤드류 화이트(Canon Andrew White)(출처: Christiantoday 캡처)

미국 성전환자 지지여론, 기존 화장실 사용 제도에 도전



▶ 출처: local abcnews10 캡처.

미국에서 남녀를 구분 사용하는 기존 화장실 사용제도가 성전환자 등장 이후, 잇따라 도전을 받고 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지난 30일 출생시의 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일명 ‘화장실법’(공공시설 및 사생활 보호법, HB2)을 1년간의 논란 끝에 결국 폐지시켰다. HB2 법안 제정 당시 성전환자를 가장한 사람들이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을 드나들며 일으키는 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지난달 주지사 선거를 통해 로이 쿠퍼(민주당) 후보가 전임 팻 매크로리(공화당) 주지사를 이기고 신임 주지사로 당선된 이후, 투표를 통해 상원 32대 16, 하원 70

대 48로 법안 폐지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법 제정 이후, 성전환자 및 지지단체 및 기업들은 자신들을 차별한다며 법안 폐지를 주장해왔다. 유명 연예인들이 노스캐롤라이나 공연을 취소하고, 온라인 결제 업체 페이팔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철회하는 등 미 전역에서 전방위 비난과 압박이 쏟아졌지만 매크로리 전 주지사는 요동하지 않았다.

또한 텍사스주도 지난 1월에 출생시의 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법 제정을 주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전미 농구협회(NFL) 등이 이같은 법안 제정시 대회 개최장소를 옮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2일 법무부와 교육부 명의로 전국 학교에 보낸 서한에서 성전환 학생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에 맞는 화장실과 라커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연방정부의 지침을 폐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GNPNEWS]

기획 | 다시 집으로(2)

어머니의 맹렬한 기도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의 절망

미국의 중국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치의과대학원에 다니며 촉망받던 한 남자가 동성애와 마약에 빠져 인생의 극단으로 치닫다가 하나님을 만나 회복된다. 그의 뒤에는 아들로 인해 자살이라는 극단적 결단을 앞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 동성애, 마약, 자살, 가정의 붕괴. 이 세대의 모든 문제를 담고 있는 한 가족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한 크리스토퍼 위안, 안젤라 위안의 수기 '다시 집으로'(대성출판사, 2017)를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 크리스토퍼 위안의 강연 중, 어머니 안젤라가 아들의 수감시절 기록한 축복묵을 들고 있는 모습(출처: soareagles.blogspot 캡처).

안젤라, “맹렬한 기도”

크리스토퍼가 치과대학원에서 제명될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몇 개월만 있으면 졸업인데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그동안 월요일마다 금식하며 기도해왔지만, 아들이 주님께 돌아오려면 바닥을 치는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들은 학교에 손을 써 달라고 부탁했다. 얼마 후 남편과 나는 학장을 만나 우리 뜻을 전했다. “크리스토퍼가 의사가 되는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아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합당한 처분을 내리셨을 줄 믿습니다.” 다음 해 여름, 우리는 애틀

랜타의 크리스토퍼 집을 방문했다. 아들은 지난해 크리스마스에도 집에 오지 않았다. 이전에도 번번이 약속을 취소했다. 아들은 고급 승용차를 몰고 공항에 나왔다. 눈 밑은 검었고 몸은 몹시 여위었는데, 두 시간 가까이 헤매다 겨우 자기 집을 찾았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불안했다. 남편과 나는 주일에 애틀랜타의 한 교회에 가면서 크리스토퍼에게도 예배시간을 알려주었다. 설교를 들으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예배가 시작되고 한참 후 크리스토퍼의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아들은 결국 우리 부부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처참했다. 어떻게 우리를 원수 보듯 하는가? 성경을 건넸지만 아들은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리기로 했다. 나는 주스만 마시고 39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청했다. “크리스토퍼를 위해 제가 막아 싸우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맹렬히 기도할 것입니다.” 다음 해 겨울, 구치소에서 수신자부담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크리스토퍼였다. 나는 분명 기도 중에 ‘무슨 대가를 치르든지’라고 했다. 그러나 그것이 마약이나 감방과 연관이 있을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마음이 아팠지만 하나님의 응답임을 확신했다. 금전등록기 종이테이프를 빼내어 이 첫 번째 축복을 적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이 나를 감쌌다.

크리스토퍼, “왕에서 노예로”

학교에서 제명당한 나는 전국 곳곳의 게이 행사를 통해 마약판매에 집중했다. 나는 게이 커뮤니티에서 대형급 스타들이 즐겨 찾

는 판매상으로 탈바꿈했다. 조던은 게이 영화업계의 슈퍼스타였다. 나는 그와 특별한 관계였다. 그는 HIV(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내게 고백했고, 얼마 후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공립병원에 입원했다. 가족도, 그 땅던 게이 친구들도 그를 떠났다. 하지만 부모님은 나와 함께 그의 병실을 지켜주었다. 그러나 우리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26번째 생일에 데렉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하던 그날 나는 한 친구의 사망소식을 들었다. 데렉과의 관계도 순탄치 않았다. 돌이 몹시 싸운 날, 그 역시 HIV 양성 판정자라고 고백했다. 나는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전전긍긍할 이유가 없어졌다. 이미 그 선을 넘었으니까. 주말 저녁이면 내 아파트에는 약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우리는 십여 개 주에 각종 약을 공급했다. 현찰이 쌓였다. 멋진 아파트, 고급 승용차, 유명 디자이너 의상. 원하는 것은 뭐든 손에 넣었다. 나는 세상 꼭대기에 있었다. 얼마 후, 애틀랜타에 부모님이 오셨을 때 교회에 갔다. 어째서 내가 거기까지 갔는지 모를 일이었지만, 그곳이야말로 ‘천국’ 가기 딱 좋은 곳이었다. 나는 교회 화장실에서 약을 하



▶ 1998년 12월 9일, 애틀랜타 시 구치소에 수감된 크리스토퍼 위안(출처: Anchorsaway Ministries 캡처).

며 황홀경을 맞보았다. 6개월 후, 마약단속국 경찰들이 아파트를 급습했다. 나는 내게 걸끄러운 한 마약상의 이름을 제보하고 보호관찰을 받았다. 돈도, 팔 물건도 없었다. 소문이 나자 사람들도 나를 피했다. 절망과 우울감에 빠져 싸구려 마약에 취해 여러 사람들과 관계하며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제 나는 왕이 아니라 노예였다. 그해 12월, 애틀랜타 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매주 보호 관찰관에게 제출한 소변에서 약물이 검출됐기 때문이었다. 일부러 다른 사람의 소변을 얻어 제출한 것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그때 구치소 쓰레기통 위에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신앙 성경이었다. <계속> [GNPNEWS]



선교 통신

예배장소를 잃어버린 후 주님이 알게 하신 것들

지난주 토요일은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이번 생일만큼은 뭐라도 준비해서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도 뉴스로 보도되었던 발리 한인 여행객 실종사건에 대한 수색이 종료된 후, 발리 상라 병원 영안실에서 열린 위로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후, 또 다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건물주인이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생일을 챙겨 줄 정신도 없이 교회 집을 정리해서 집으로 옮겨 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이 임시로 예배처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소식이 마치 주님의 신호와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편안한 공간이 계속 허락된다면 쉽게 안주해 버릴 것이고 지금까지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둘러 이웃 주민들을 만나 한 달간은 집에서 예배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교회 강대상이며, 플랜카드, 악기들을 옮기고 있는데 미심쩍은 박스 하나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박스는 옮길 때부터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하더니 집 안에 들여놓자마자 기어코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찢어진 박스에서 오래된 마이크 선들과 함께 바퀴벌레 대가족이 튀어나와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친구들이라고 이 녀석을 좋아하겠습니까? 이사를 돕고 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사라졌고 몇 분이 남아서 이놈들과 고된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이크 선을 살려야 했기에 저는 햇살이 내리쬐는 곳에서 다시 그 박스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숨어있던 마지막 남은 녀석이 있었습니다. 저는 발견 즉시 처단했습니다. 그 순간,

어둠에 거하기 좋아하는 바퀴벌레의 습성이 말씀의 빛 가운데 드러나기 싫어하는 나의 숨겨진 죄악들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주님은 오늘도 빛 가운데로 저를 초대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만 지긋지긋한 수치를 벗고 넘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땠는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은 빛이 됩니다.

찢어진 박스에서 나온 바퀴벌레를 보고...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엡 5:13)

이전 교회 공간이 없어지고 당분간 저희 집에서 예배해야 함이 확실해졌을 때, 기뻐하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실망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실망하는 성도들은 만약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했고, 기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신다는 신호라며 함께 기도 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하여 자율적으로 날을 정하고 저희 집에서 12시간 금식 말씀 기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로 한 장씩 읽어가며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녕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과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의 연합과 화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교회 안에 마음이 나뉘는 일과 상처를 주고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회개로 이끄셨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용납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히 성장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 이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GNPNEWS] 인도네시아=최기석, 고은선 선교사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마음이 흔들릴 때 예배로 단기선교의 부르심 깨달아”

쉽게 입국하기 어려운 C국으로 1년 동안 단기선교를 다녀온 차세은, 이은진 자매를 만났다. 선교사 자녀를 섬기는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고 비장한 마음으로 날아간 선교지에서 막상 그들을 기다린 것은 무료함과 정체성의 혼란이었다. “이 먼 데까지 우리가 애 보러 왔나? 우리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였다.”는 고백이 “이 땅의 영혼들을 생각하면 기도하고 싶다.”는 고백으로 변하기까지 그들의 여정을 들어보았다.

- 어떻게 1년간 단기선교를 나가게 됐나요?

이은진(이하 이):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과소될 선교지가 정해지고 그곳으로 가기 전 공동체 선교훈련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제 존재의 절망을 맛보게 됐어요. 뜨겁게 하던 기도도 잘 안 되고, 어린 지체들이 저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고, 마치 제가 바보가 된 것 같았어요. 그동안 잘한다고 생각해왔던 것들을 번번이 실패하고 결국 제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인생 처음으로 선교사가 나의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훈련을 마치며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그렇게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린 후 한 선교단체를 통해 인도하심을 받고 간 곳이 C국이었어요.”

주도권을 넘기고, 두려움을 뒤로하고 헌신 결단

차세은(이하 차):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에 나가 주님을 만나면서 막연히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저의 부족함을 발견하기도 했지만 주님께 저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앙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복음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됐어요. 그러다 한 선교단체 간사로 섬기게 되면서 실제적인 선교에 대해 접하게 됐어요. 그런데 선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을 직접 보면서 두려워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을 뒤로하고 선교지로 나가는 건 도저히 못 할 것 같았어요. 그러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의 영광이 무엇인지 보게 됐어요. 그 영광에 비해 저의 두려움들은 너무 작았어요. 그렇게 두려움을 뒤로하고 C국 사역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에 곧바로 응답하게 됐어요.”

- 선교지에서 어떤 사역을 했나요?

이: “저희는 세 가정의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았어요. 각 가정으로 한 명씩 흠어져 하루에 네 시간



순종을 통해 사랑을 배운 이은진(영광교회), 차세은(갈보리교회) 자매

씩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도 뭐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아이들을 지켜보는 정도였어요. 그러다 나름대로 아이들과 찬양과 율동도 하고 미술활동이나 바깥놀이 등을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그 시간들을 채워나갔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처음엔 너무 무료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였어요. 도대체 이 멀리까지 우리가 애를 보러왔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곳 문화에 적응하기도 어려웠어요. 게다가 우리끼리 연합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저의 마음을 예배자리에서 붙들어 주셨어요. 매일 아침 둘이 드리는 예배, 열방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저녁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까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말씀해주셨어요. 비록 작은 일처럼 느껴지지만 ‘주님이 바로 이 일로 나를 부르셨구나. 충성해야겠다.’ 생각했죠.”

- 어려운 시간을 주님이 말씀으로 인도해주셨네요.

이: “네. 그러면서 진정한 섬김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됐어요. C국에 선교사로 부름 받은 선교사님들이 기도하고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저의 부르심이었죠. 마치 페이스메이커(Pace maker) 같았어요. 육상에서 메인 선수가 달릴 때 기록을 잘 낼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역할 말이에요. 오직 선교사님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달릴 수 있도록 저를 돕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내가 없는 자리, 오직 주님만이 남는 자리였어요.”

- 세은 자매님은 어떤 시간을 보냈나요?

차: “저는 아이 돌보는 일이 처음이었어요. 단순히 복음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그저 어린아이들 뒤치다꺼리만 했어요. 그러나 적은 일에도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을 붙들면서 나를 찾

기보다 주님을 찾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다 아이들과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말씀도 전하고 주제 말씀도 암송해보고, 열방의 소식들을 가지고 기도해보기도 했어요. 일단 할 수 있는 게 없어 예배를 시작한 거였는데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아이들을 사랑하게 됐고요.”

-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차: “대부분 미취학 어린이였어요. 많이 어리죠. 식사기도 정도만 하던 아이들이었는데 그러면서 열방의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됐어요. 물론 숙제로 내준 것이었지만요. 그러다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 변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선교사님들이 4박 5일간 선교단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일정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꼬박 돌봐야 하는 일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곳에 함께 가서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과 복음캠프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복음의 내용을 나누고 여러 활동들도 했어요. 처음엔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엄마를 찾지 않을까 걱정하셨는데 오히려 부모님들이 쉬는 시간에 와서 아이들을 만나야 할 정도로 아이들은 복음에 집중했어요.”

-아이들이 어리데도 복음에 집중을 잘했군요.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이: “아이들 중 동생을 때리고 심하게 반항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죄에 대한 진리를 나누는 시간에 하기 싫다고 울었어요.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고백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런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는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모두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단하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날 그 친구가 새벽 일찍 일어나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오늘은 뭐해요? 정말 기대 돼요.”라는 말을 듣는데 ‘정말 성령님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를 계기로 아이들과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서 관계도 끈끈해졌어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예배시간에 집중도 잘하지 못하기도 했는데 캠프 이후로는 오늘 어느 나라 기도하냐고 묻기도 하고 모두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공동체가 된 것 같았어요.”

미취학 선교사 자녀들과 복음캠프를

- 다음세대가 복음으로 일어났군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런데 앞서 은진자매님이 문화나 연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었나요?

이: “인종차별 문제였어요. 그곳엔 동양인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물원 원숭이 보듯 우리를 쳐다봐요. 또 남자들은 아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동양인 여성을 대놓고 무시했어요. 그래도 저는 그것이 그렇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는데 세은 자매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차: “처음엔 현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기대도 했어요. 예수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들 돌보는 일을 마치고 언어를 배우기 위해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매번 만나는 남자들이 우리를 놀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들의 눈빛과 말들로 우리를 두고 깔깔거리고 얘기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 일이 반복되자 그들이 너무 미워졌어요. 예배 때마다 회개하고 기도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버스에서 또 그러는데 마음이 너무 상해서 견디다 못해 내리면서 우리말로 ‘바보!’라고 크게 소리쳤어요.”

이: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버

스에서 내려 한참을 웃었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되는 것도 알지만 속은 시원했어요(웃음).”

차: “그날 기도하는 중에 나에게서는 사랑할 힘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구하게 됐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달라고요. 기도하면서도 내가 과연 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결국은 주님이 그 사랑을 이루어주셨어요.”

-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네요.

차: “단기선교사역을 마칠 때쯤 선교사님들과 기도제목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 땅의 영혼들이 가장 먼저 생각났어요.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요. 제 마음에 아직 상처가 남아있기도 하고 저의 다음 걸음도 고민하고 있던 때였는데 그들을 향한 기도제목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사랑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비록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미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나로서는 불가능한 사랑을 가능케하신 하나님

-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 “저희에게 현지 언어를 가르쳐준 선생님이에요. 아주 종교심이 깊은 무슬림이었어요. 선생님은 학교에 도착하면 반드시 10분 동안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해요. 우리는 길거리에서 전도할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캠퍼스가 유일한 전도의 장이라 선생님과 관계를 잘 맺어보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수업시간을 갑자기 바꾸겠다고 연락이 오곤 했어요. 어느 날은 친구 결혼식에 가야 한다며 갑자기 수업을 취소하기도 했어요. 화가 나서 학교에 선생님을 바꿔 달라고 말할까도 생각했지만 이 영혼을 두고 기도해온 터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다음 수업에 선생님이 약간 우리 눈치를 보긴 했지만 바뀌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뀌었죠. 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관용했어요. 오히려 우리가 생일이면 선물 주고 성탄절에 밥을 사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해 나갔어요. 그렇게 1년을 잘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별 기대는 안했어요.”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사사시대에 빛난 복음 (5.끝)

복음을 가진 교회가 역사의 유일한 해답이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든 이후 100여 년이 지났을 때 유럽의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교리만 남은 모습이였다. 교인들은 명목상 교인들이 되어 버렸고, 강단은 교리 논쟁만 일삼았으며, 신학교는 생명력을 잃어갔다. 그때 슈퍼너 목사의 심령 안에 경건의 열망이 일어났다. 잠자고 있던 사람들의 심령을 건드렸다. 그러자 경건의 모임들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버려두었던 성경을 다시 손에 들기 시작했다. 거듭나 본적 없었고, 실체가 안 된 종교적 삶에 회의를 느끼던 프랑케라는 젊은 교수가 주님을 만나 거듭나게 되었다. 그리고 바울처럼 자신이 추구하던 지식을 뚝치러 여기고, 하나님을 떠난 지성과 기독교적 활동들에 반기를 들었다.

이 두 사람, 슈퍼너와 프랑케가 중심이 되어 1694년에 설립된 할레대학은 제2의 종교개혁이라 불리는 경건주의의 요람이 되었다. 소망 없던 도시, 술과 폭력으로 찌든 저주의 땅에 불꽃처럼 할레에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 모여들었다. 철저한 중생, 변화된 삶, 거룩

한 삶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진리에 그들은 순종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음은 물론이다. 하나님은 결코 일꾼을 놓치지 않으신다. 언제나 그랬듯이 주님의 교회는 룿, 보아스, 라합처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의해 지금도 생명력 있게, 힘 있게 전진해가고 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대단한 영웅이 아니었다. 룿과 같은 증인들이었다.

기독교가 염불같은 주문인가? 결코 아니다. 죽은 신학 교리는 더더욱 아니다. 기독교는 '생명' 자체다. 예수 그리스도는 관념의 신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생명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란 한 치도 물려섬 없이, 헛된 자아에 속아 살아왔던 옛 생명의 너울을 벗어 버려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십자가의 명백한 실재를 붙들고, 새 생명의 삶으로 초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한다.

할 수 있다, 없음을 말하지 말라. 오직 '내'안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드릴 때 '나'의 삶은 역사가 된다. 룿이 그랬다. 그녀는 자신에게서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렸다. 그래서 그녀의 비극적인 삶은 더 이상 자기 연민의 도구가 될 수 없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슈퍼너와 프랑케, 그들의 순종을 통해 헨델, 조지 물러, 귀츨라프, 진젠도르프 백작 등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레대학을 통해 배출되었다. 특히 진젠도르프 백작을 통

해 태어난 모라비안 공동체는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가 된 요한 웨슬레의 삶에 감화를 주었고, 그로 인해 영국교회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또한 캠퍼스는 부흥되었고,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 실로 작은 씨앗 하나를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세기를 이루셨다. 이 놀라운 축복들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은 130여 년 전 복음을 받을 수 있었고, 지금의 한국교회는 그 씨앗이 맺은 놀라운 열매이다.

부끄럽고 연약하다고 해도 복음을 가진 교회는 역사의 유일한 해

답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모든 인류를 살릴 마지막 키(key)를 우리처럼 부끄럽고 연약한 '교회'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해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 결코 '나는 작다.'고 말하지 말라. 주님은 일찍이 스스로를 작게 여기던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라고 선언하셨다. 기드온, 그를 큰 용사되게 하는 것이 주님께 달렸기 때문이다.

사사시대와 너무 흡사해 보이는 이때, 제2의 종교개혁과 같은 진정한 개혁이 너무도 절실하다. 제2의 할레대학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필요하다. 혼자서는 못한다.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 '우리 세대에 그 날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증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보아스가 룿을 위해 쉬지 않고 속히 일했던 것처럼,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은 지금 달려오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태도를 분명히 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죽자.(2016.4 메시지 정리). <끝>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LOG미션 대표)

Nehemiah 52 Prayer 2017

복음과 기도미디어
gospel & prayer media
하나님만을 위한 신학자인 우리
기도 24-365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건의 열망

[느헤미야52기도정보집 특별판]

마침내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건의 열망이라는 주제로 느헤미야52기도 특별판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이제 기도의 순종만이 남았다. 사탄과의 전쟁을 끝내고 선교완성이 이루어지길 고대하며 기도하자.

이 땅의 교회를 개혁하고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여 선교완성을 이루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아는 자로 무릎을 꿇자! 우리의 믿음을 보이자!

원수들이 낙담하도록 기도의 불을 일으키자!

- 「초대의 글 "우리가 오늘의 느헤미야입니다."」 중에서-



1권 : 복음의 영광 2권 : 오직 은혜의 복음 3권 :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떠나는
4권 :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5권 : 절대 믿음 6권 : 우리 세대에 그날의 영광을!

세트 : 43,000원
날권 : 8,000원

구입문의

야긴과 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Interview

<5면에 이어>

“우리 부족했지만 주님이 기쁨이 돼주셨어요”

차: “그런데 선생님이 정말 약속을 지켰어요. 선생님이 맛있는 밥도 사줬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선생님이 아주 쉬운 단어로 “나는 너희를 만나서 정말 기뻐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손을 잡으면서 진심을 담아 하는 말에 울컥했어요.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준 것이 고맙기도 하면서 이 영혼들을 마음껏 사랑하지 못한 것 같아 주님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 버스에서 울었어요. 비록 난 부족했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들에게 기쁨이 됐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숙소로 돌아와 그날 찍은 사진을 보내줬는데 ‘우리를 잊지 말아 달라, 우리를 꼭 기억해 달라.’는 답장이 왔어요. 이것이 마치 그 민족이 외치는 음성 같았어요.”

이: “맞아요. 마지막 만남은 잊지 못해요. 저는 비록 그 나라 영혼들에 대한 기대감도 없이 갔지만 이렇게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기도제목을 말씀해주세요.

이: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선

교지에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존경스러웠어요. 저희는 다시 돌아갈 곳이 있으니 어려움이 있어도 잠깐 견디면 됐지만 그분들은 선교지가 삶의 터전인거죠. 저도 지금은 가정으로 돌아왔지만 선교지에서 그랬던 것처럼 영혼들을 섬기고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남은 삶으로, 삶이 예배가 되도록,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열방에 주저 없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차: “그곳에서 만난 영혼들을 잊을 수 없어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걸음씩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기도로 열방을 섬기고 싶고 열방에 나가 섬기는 자리에 있고 싶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 선교사로 나갈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GNPNEWS]

Y.K.





“하나님을 뵈고 싶다면 기도가 땅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권사님, 이번에 OO교회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선교관학교를 하는데 권사님도 오세요.”

“그 학교는 어떤 학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교적 존재가 되도록 하는 훈련학교라고 했습니다. 6개월 과정에 결석 한번에도 수료가 어렵다는 말에 내년에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집안 모임을 토요일로 약속해 자녀들이 그때만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내년에 다른 일 때문에 못 오실 수도 있으니 이번 학교에 꼭 오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목사님과 다른 권사님 한 분과 함께 지원하여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순종해보기로

예배를 드리고, 강의만 들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매주 선포되는 말씀으로 미션을 수행해야 하고 에세이, 독후감, 영화감상문까지 끝이 없었습니다. 올해 78세인 저는 시인도 아니고, 작가도 아

닌데 글을 써본 지가 까마득한 옛날이라 큰 벽에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시작을 했으니 끝까지 순종해보기로 했습니다.

학교의 마지막 훈련인 선교 아웃리치까지 2주간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선교를 가도 될까? 젊은 청년들이나 가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만약 나를 부르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뵈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뵈고 싶은 것이 제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도착하여 현장 선교사님 댁에 짐을 놓은 후, 곧바로 청소년들을 위해 복음이 선포되는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14명의 청소년들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보이던지요. 우리 팀에게 주어진 영역을 섬기면서 총체적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성찬식까지 어린 영혼들과 함께하며 잘 울지 않던 저도 눈물이 날 만큼 감격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 현지에 있는 교회를 섬기

“
 올해 78세.
 내가 정말 선교를 가도 될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을 뵈고 싶었습니다.
 ”



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계획에도 없던 성경학교를 3일간 좁고 무더운 교실 안에서 120명의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온 몸으로 찬양하고 뛰고 춤추며 예배하는 모습. 게임을 할 때도 아이들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우리와 친해진 아이들은 팀원들에게 안기고 나이든 내게도 다가와 손에 입맞춤했습니다. 서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너무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많은 사랑을 원하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품으라고, 당신의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각종 약물과 알코올에 중독되고 부패한 이 땅을 회복시키는데 이 아이들을 사용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다음세대로 세워주옵소서.’

교회에 이미 세워진 신실한 일꾼들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 환하게 보이는 듯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저에게 선교적 삶을 도전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처음 아웃리치를 갈 때, 하나님을 뵈고 싶었던 그 기도가 전부 이루어졌습니다. 출발부터 도착까지 불편함 없이 자고, 깨고, 먹고... 마치 엘리야가 로템나무 아래서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GNPNEWS]

김성복 권사(대구 대현교회)



“총살당하는 친구의 모습이 너무 달랐습니다”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친구의 총살

군대에 가 있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돌아온 아들의 모습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너, 군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자 아들은 “군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요. 아무 일도 없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수심에 잠겨 있는 아들의 얼굴에 심상찮은 것을 느낀 어머니는 “네 얼굴을 보니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 무슨 일이야?”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던 아들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군대에서 저와 가까이 지낸 친구가 오늘 총살을 당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총살당하는 그 친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사람들은 모두 죽을 때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안 죽겠다고 발버둥을



▶ 출처: 모퉁이들 선교회 'God so loved North Korea' 영상 캡처

치고, 두려움으로 온몸을 떠는데, 이 친구는 총살당하는 순간까지도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 친구가 죽게 된 이유는 하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정말 이해를 못하겠느냐? 하늘을 이해하지 못하겠느냐?”하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예, 못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상교육이 철저하게 진행되어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잘못 전도했다가 신고를 당해 잡혀가는 일이 허다했기 때문에 자식일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어머니

는 잠시 망설이다 아들에게 그 친구가 믿는 하늘에 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어머니의 말을 듣던 아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어머니가 총살을 당한 친구가 믿었던 하늘을 믿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설명을 듣던 아들은 “어머니,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나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같이 훌륭한 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도 믿고 싶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나머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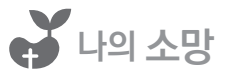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있을 때,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온 형제들은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희귀한 장면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큰소리 한번 내지 않는 밝은 모습의 어머니와 형이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중얼중얼하는 모습이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때 울면서 중얼거리던 아들이 일어나서는 “그동안 어머니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어 왔어.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며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으로부터 3000권의 성경을 복한으로 들여왔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한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어 생명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GNPNEWS]

<출처: 붉은 예수쟁이(문광서원)>



“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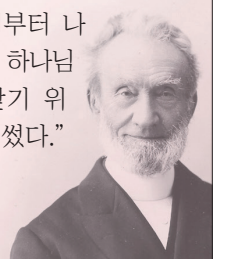
2000명의 어린이를 수용한 보육원을 운영하던 조지 물러의 1838년 9월 17일 일기.

“오늘 하루를 새로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셨다. 또 한 주가 지나 갔고 우리는 빛지지 않고 97명의 보육원 식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줄 수 있었다.”

고아원을 운영한 60여 년 동안 5만 번 이상 기적적인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물러는 ‘나 죽고 예수 산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세상에 대해, 세상의 인정 혹은 질책에 대해 죽었고, 심지어 나의 형제들이나 친구들의 인정이나 비난에 대해 죽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만 애썼다.”

[GNPNEWS]



뷰즈인 아트
Views in Arts

신미경의 <화장실 프로젝트(Toilet Project)>

철저히 자기 자신을 버린 '비누'에서 발견된 십자가



▶ 비누로 제작된 조각품이 화장실 세면대에 비치되어 있다. 작품설명: 신미경, <화장실 프로젝트>, 2013년 작, 타이완 타이페이 설치 작품.

예전부터 조각이라면 단단한 재료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각이 태가 변형되고 사라진다면 어떻게 만들어 형태가 오랫동안 유지 녹아내리고 흘러내리면서 원래 형태가 변형되고 사라진다면 어떻게? 그것을 과연 조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러한 도전을 시도하였던 작가가 신미경이었다. 그는 미술사에서 중요한 작품들, 또는 박물관에 잘 보존·전시되어 있는 고대 조각들을 비누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비누로 제작한 자신의 작품들을 화장실 세면대 위에 놓고, 사람들이 실제로 손을 씻는데 사용하도록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누 작품을 사용하면서 그의 조각은 형태가 허물어지고, 작아지고, 녹아내리게 되었다.

이 화장실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즈음에 신미경의 작품은 원작의 완벽한 형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그의 작품은 고고한 감상 대상이 아닌, 철저히 자기 자신을 버린 사용 도구였다. 그러나 이 일그러진 형태의 작품은 당당히 전시실에 설치될 수 있었는데, 여러 사람을 씻어주면서 녹아내린 형태의 작품이 전시되었을 때, 그것은 누구나

환영하고 누구나 선호하는 그런 작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아름다움의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었다.

전혀 다른 아름다움의 메시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떠한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한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버린 바 되었던 십자가. 이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거리가 되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기준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 그들이 차지(且置)하였던 이 십자가는 사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 자체였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GNPNEWS]

이상윤(미술평론가)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주님의 통치하심보다 사람이 커 보이는 위기가 찾아왔다”

선교사로 헌신한 지 3년이 되었다. 부르신 사역지마다 진하게 나를 만나주신 주님께서 이번에는 소속 선교단체 선교사를 양성하는 훈련 학교로 불러주셨다. 새로 이사하게 된 공동체는 여러 선교단체가 함께 지내는 곳이었다. 숙소 사용도 다른 단체의 사역자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이사를 와서 처음 숙소에 들어가 보니 창고처럼 짐들이 쌓여 있었다. 서랍장이나 행거 같은 가구가 하나도 없었다. 한쪽 벽에 여러 칸의 나무 선반이 있었지만 이미 물건들이 여기저기 놓여있어, 함께 쓰기가 관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짐을 풀 수가 없었다. 당장 필요한 것들만 꺼내어 쓰고 다시 넣어 두었다.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음속으로 '감사하자'를 되뇌며 스스로 위로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던 중에 또 다른 단체에 헌신한 형제 사역자 한 분이 오게 되었고 이제 3명이 함께 방을 쓰게 되었다. 어느 날 그 형제가 속해있는 단체의 대표께서 우리 방을 방문했다. 그리고 우리 방을 보시고는 좀 놀라셨다. 내가 느꼈던 것처럼 말이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랍장과 장롱, 행거가 한꺼번에 들어왔다. 신이 났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허



락된 가구들을 나르던 중 내 입에서 한 마디가 불쑥 튀어나왔다. “대표 선교사님이 신경 써주시니까 다르네!” 이 말에는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한 불만이 담겨있었다. 그때 함께 가구를 나르던 지체가 내 말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세게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지?’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지?

주님은 그동안 여러 가지 감격스러운 상황에서 “주님이면 충분하다!”라고 담대히 외치게 해주셨다. 그런데 어느새 주님의 허락하심에 대한 감사도, 주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신뢰도 잃어버리고 주님과의 교제도 없었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사람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심하게 병든 나의 실상을 발

견하게 됐다. 주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아들을 내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신 분 아닌가. 방에서 혼자 한참을 울었다.

위기라고 느껴졌다. 이는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주님의 통치하심보다 사람이 더 크게 보고 있는 나. 사람의 어떠한 때문에 일이 되는 것 같고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주님에 대한 신뢰나, 교제, 감격이 있을 리 없었다. 분명 위기였다.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했다.

“주님, 주님과의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잃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면 충분했던 그 감격을 다시 회

복하게 해주세요. 허락하심이 가장 좋은 것임을, 그리고 분명히 주님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게 해주세요.” 주님은 나의 가난하고 낮아진 마음을 받으셨고, 나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너무나 마음 아프고 죄송한 사건이었지만,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 한 분이면 얼마나 충분한지를 더욱 알게 하셨다. 너무나 감사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이 구호가 아닌 나에게 진리가 되도록 다시 한번 새겨주셨다. 이제는 내 앞에 있는 상황에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과의 교제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나보다 더 원하시는 주님이 친히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것이다. 내 안에서 계속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을 보며 열방이 소망 있음을 본다. 주님은 마침내 당신의 백성들을 원래 지으셨던 목적대로 회복하실 것이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고 모두가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외치게 될 것이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GNPNEWS]

남연희 선교사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7. 3. 17 ~ 3. 30 (7나다 순)

개인

강성민 강은진 강중채 권혜령 김동은 김성훈 박숙자 박은길 송미희 이경희 이란영 이복길 이현희 장미자 조경미 조남미 조명숙 조성실 차인순 최영환 허금희 무명

교회 및 단체

광주새순교회 그루터기교회 김화제일교회 목자교회 산돌교회 시은좌교회 열매교회 열방그루터기교회 요셉의창고미니스트리 전주은누리교회 처음사랑교회 천보산민족기도원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채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